

2025년 3월 31일 제43호

연 구 원 이 예 린
연 구 원 서 유 나
연 구 원 김 중 현

HIF 월간 산업 이슈(3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산업별 주요 이슈

철강

악재 겹친 철강사,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 중

- 건설업 등 전방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국내 철강업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확대되며 1분기 실적은 정체될 전망
- 이에 철강사는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 저수익 사업 매각 작업 진행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생산기지 다변화를 시도하는 중

반도체

반도체 경기, 변동성 속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

- 중국 이구환신, 주요 업체의 공급 조정 등으로 인해 최근 주요 반도체 가격이 반등 하면서 지난 하반기 성장세가 둔화되었던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
- 향후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신규 및 비축 수요, AI 경쟁 심화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수요 등으로 반도체 업황은 변동성 속에서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

해운

트럼프發 관세 전쟁으로 낙폭 커지는 해상운임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 교역량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컨테이너선 시장의 운임 하락세가 본격화
- 컨테이너선 시장은 공급 과잉 우려가 높은 시장이나 관세 인상의 부정적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시황 약세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산업 이슈

철강

약재 겹친 철강사,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 중

반도체

반도체 경기, 변동성 속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

해운

트럼프發 관세 전쟁으로 낙폭 커지는 해상운임

C24. 철강

악재 겹친 철강사,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 중

연구원 이예린

※ Summary : 건설 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며 국내 철강업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확대.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요 철강사는 구조조정, 저수익 사업 매각 작업 진행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 뿐만 아니라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신시장 개척 등 생산기지 다변화를 시도하는 중. 부정적 산업 환경이 지속되며 국내 철강사의 1분기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중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및 중국의 생산량 조절 정책 등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

■ 전방산업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의 대외 리스크 요인이 확대

- 견조한 자동차·조선向 수요에도, '24년 건축 허가 면적이 전년대비 6.8% 감소하는 등 장기화되는 건설 경기 침체로 국내 철강업은 업황 반등이 어려운 상황
 - 철강업 매출 경기실사지수 : 88('22.1Q) → 84('23.1Q) → 76('24.1Q) → 74('24.4Q) → 74('25.1Q)
- 미국발 관세 부과에 이어 EU의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 등 글로벌 철강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며 국내 철강업 수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
 - EU는 4월부터 철강 수입 물량을 최대 15% 축소하고 잔여물량의 무관세 할당제를 일부 폐지하는 등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며 인도도 수입 철강에 12% 임시 관세 부과를 검토
- 中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제조업 경기는 소폭 회복되었으나, 부동산은 1선 도시 위주의 시장 개선 및 미분양 물량 증가세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철강 가격 하락세가 지속

그림1 | 전방 수요 산업 경기 지표



자료 : 통계청

그림2 | 중국 철강 가격 추이



주 : 중국 국내가 기준
자료 : Korea P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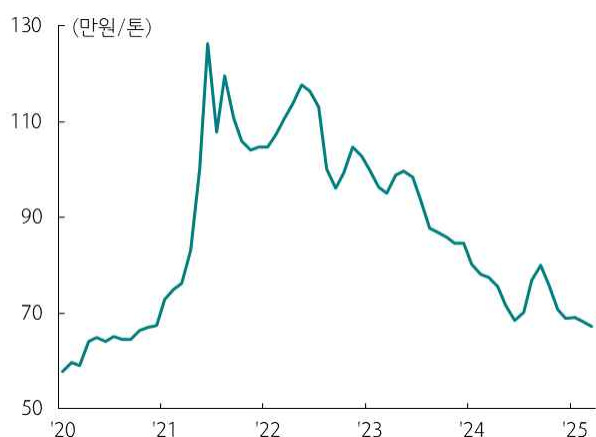
■ 생산량 조절 및 생산기지 다변화 등으로 철강사는 자구 노력을 지속 중

-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며 현대제철은 포항공장 대상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중국법인을 매각하였으며, 포스코 그룹은 임원 연봉을 삭감하고 현금 확보를 위해 저수익·비핵심자산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등 주요 철강사들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
 - 포스코그룹은 '26년까지 현금 2.1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 주식을 전량 매각했으며 중국 스테인리스강 공장 매각 등 저수익 사업 정리를 계획
- 특히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철근 유통 가격이 역마진 구조를 형성하며, 동국제강은 3월 철근 생산·출하를 중단하였고 한국특강, 대한제강 등 철근 제강사도 유통向 출하를 중단
 - 철근 유통가 추이(만원/톤) : 99.8('23.1) → 80.1('24.1) → 68.8('24.12) → 67.3('25.3)
- 관세 대응 및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현대제철은 '29년을 목표로 미국에 자동차강판에 특화된 전기로 제철소 설립할 예정이며 포스코는 인도 철강사 JSW와 합작 법인 설립 및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동국제강그룹은 호주 현지법인 설립을 검토

■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 요인도 존재하나, 철강사의 상반기 실적 개선은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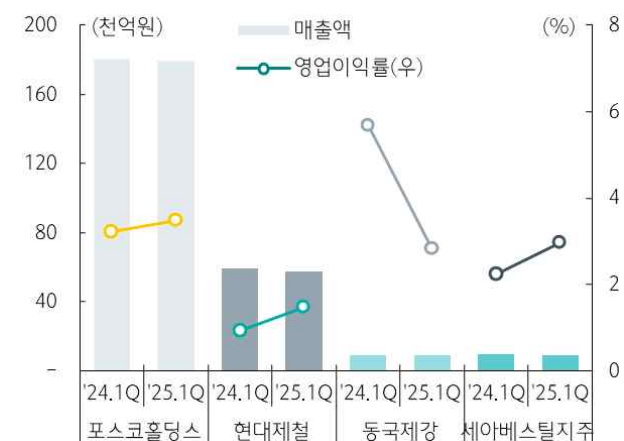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속 자국 내 수요산업 침체로 중국 정부의 철강업 구조조정 강화 및 감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은 완화될 가능성
 - 3월 24일 신장 지역 철강사들은 일일 조강생산량 10% 감축(연간 130만톤) 목표를 발표
- 또한 국내에서도 중저가 철강 반덤핑 조사 착수와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어 내수 시장에서 韓철강 점유율의 상승을 기대
 - 3월 25일 중후판에 21.6%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후판 생산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
- 다만, 지속되는 건설업의 부진과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4개사 합산매출액은 1사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상반기까지도 부진한 국면을 이어갈 전망 📉

그림3 | 철근 유통 가격 추이



주 : 철근 고장력 HD10mm 1차 유통가 기준
자료 : Korea PDS

그림4 | 주요 철강사 1분기 실적 전망



주 :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세아베스틸지주는 연결기준, 동국제강은 별도기준
자료 : FnGuide

C26. 반도체

반도체 경기, 변동성 속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

연구원 서유나

※ Summary : 최근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면서 지난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던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에는 중국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한 IT 수요 증가 및 세트 업체들의 재고 감소,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공급 감소 등이 존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양호한 매출액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 고객사들의 재고 정상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및 관세 인상에 대비한 재고 비축, AI 경쟁 심화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수요 등으로 인해 반도체 업황은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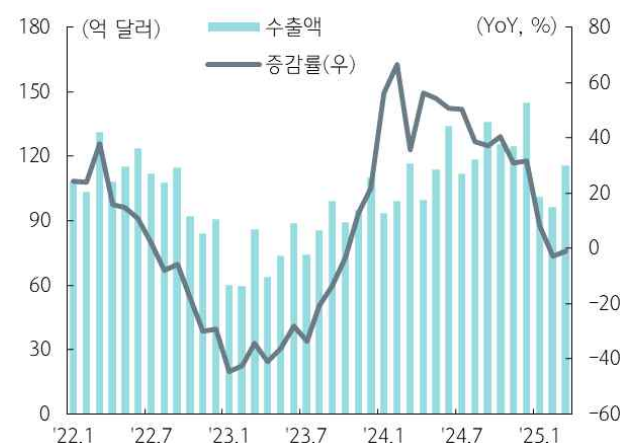
■ 지난 하반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던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

- 최근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면서 중국발 범용 반도체 공급 과잉, 전방수요 부진 등으로 둔화되었던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는 모습
 - DDR4 현물가격은 전월비 7.1% 상승한 1.85달러, DDR5는 7.6% 상승한 5.19달러 ('3.24 기준)
-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에는 중국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한 IT 수요 증가 및 세트 업체들의 재고 조정과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변화 등이 존재
 - 중국 1,2월 통신기기 소매 판매액은 전년비 26.2% 증가한 1,594억 위안(약 32.1조원)을 기록
 - D램은 선단 공정 전환에 따른, 낸드는 주요 업체의 감산에 따른 공급 조정 효과에 주로 기인
- 국내 반도체 수출액 또한 '24년 1분기 이후 성장세가 꺾이면서 올해 2월 음(-)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향후 양(+)의 성장률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그림5 | 반도체 가격 동향



그림6 | 국내 반도체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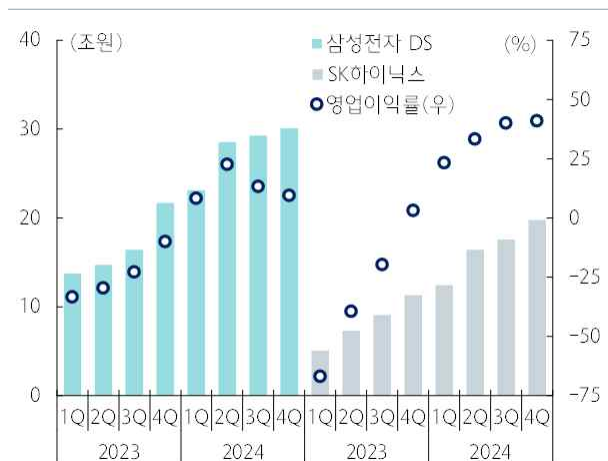
■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액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

-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美)의 매출액은 '24년 하반기 주요 제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액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4.4Q 매출액 및 매출액증가율(YoY): 삼성전자 30.1조원/38.8%, SK하이닉스 19.7조원/74.8%, 마이크론 80.5억달러(약 11.8조원)/28.3% (마이크론은 '24.12~'25.2 기준)
- 수익성 측면에서 메모리 기업별로 상이한 영업이익률을 기록(삼성전자 9.5%, SK하이닉스 40.9%, 마이크론 22.1%)했는데, 이는 반도체 제품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 SK하이닉스는 HBM 등 고부가 제품을 타 기업보다 빠르게 확대하면서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
-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가 미뤄졌으나 미국 정부와의 현지생산 확대 협상 등 기업마다 차별화된 대응이 예상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축소될 가능성은 상존

■ 반도체 업황은 예상보다 당겨진 가격 반등을 시작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

- 4월부터 인상되는 낸드 가격 및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과 관세 인상에 대비한 신규 및 비축 수요로 인해 반도체 가격 상승 및 업황 회복이 이어질 전망
 - 샌디스크(美, 웨스턴디지털에서 분사), 마이크론(美), YMTC(中)은 가격 인상을 예고('24.3)
 - PC, 스마트폰 고객사들의 평균 재고는 약 10주('24.4Q)에서 8.5주('25.1Q(E))로 감소 중
- 또한 딥시크 등 다양화된 AI 모델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AI 및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HBM, eSSD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은 연간 11.6%씩 성장해 '32년 5,849억 달러에 달할 전망(Fortune)
- 다만 중국의 반도체 생산 확대 및 미국 관세에 따른 소비 둔화 등 업황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며 레거시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반도체 양극화가 가속될 가능성

그림 7 |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 동향



자료 : Dart

표 1 | DRAM 가격 전망

구분	25.1Q	25.2Q
PC向	- DDR4 13~18% 하락 - DDR5 10~15% 하락	- DDR4 3~8% 하락 - DDR5 보합세
서버向	- DDR4 10~15% 하락 - DDR5 3~8% 하락	- DDR4 3~8% 하락 - DDR5 보합세
모바일向	- LPDDR4 8~13% 하락 - LPDDR5 3~8% 하락	- LPDDR4 0~5% 하락 - LPDDR5 0~5% 상승
그래픽向	- GDDR6 8~13% 하락 - GDDR7 0~5% 하락	- GDDR6 3~8% 하락 - GDDR7 0~5% 하락
전체 D램 (HBM 포함)	0~5% 하락	3~8% 상승

자료 : Trendforce('3.25)

H. 해운

트럼프發 관세 전쟁으로 낙폭 커지는 해상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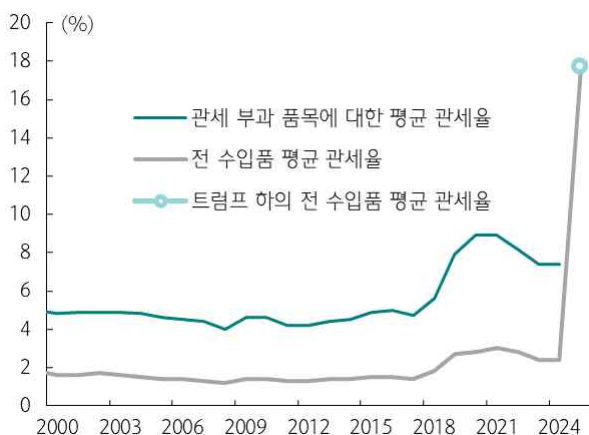
연구원 김중현

※ Summary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교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해상운임 하락세가 본격화. 특히, 올해 들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p씩 두 차례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미-중 노선 운임이 큰 폭으로 하락. 이에 더하여 미국은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에 자동차·반도체 관세까지 공언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 역시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한 만큼 관세 전쟁이 격화되며 해상운임 하락세가 더욱 심화될 전망. 특히, 컨테이너선 시장은 공급 과잉 우려에 관세의 부정적 영향까지 더해져 시황 약세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글로벌 교역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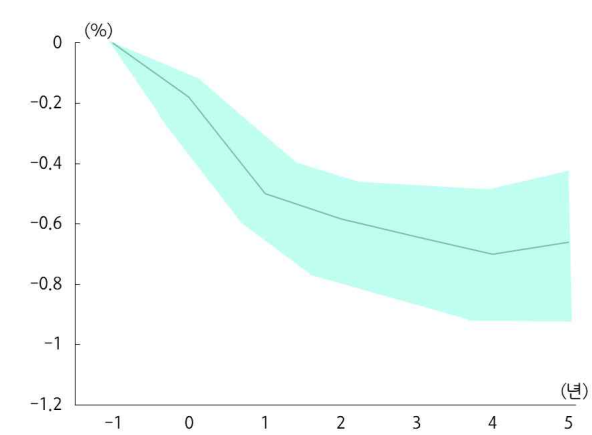
- 트럼프는 취임 직후 'America First Trade Policy'를 통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일괄 관세 부과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부과는 단순히 과세 대상 상품만이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 부과로 기존 면세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반적 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
- 멕시코·캐나다에 이어 중국, EU 등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대응으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되며 물동량 감소세가 심화될 우려
- 무역제한이 강화될수록 글로벌 GDP 감소폭이 확대되는 것(IMF, 2022)으로 나타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한편,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상호보완성이 존재하여 관세가 높은 국가일수록 비관세 장벽의 부정적 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관세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중장기 모니터링이 필요

그림8 | 美 수입품 및 과세 대상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



자료 : Statista

그림9 | '무역제한 조치'가 글로벌 GDP에 미치는 영향



주 : 무역제한 조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포괄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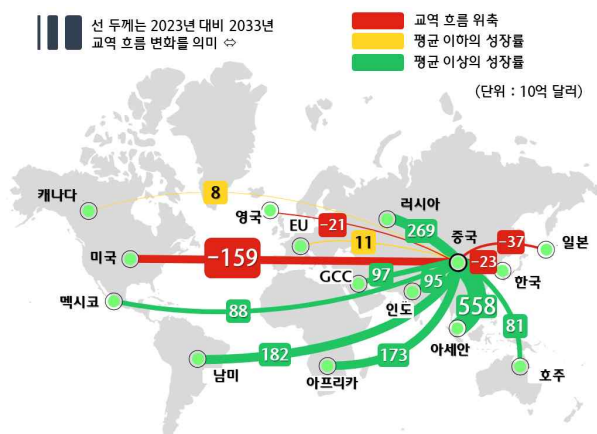
■ 물동량 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컨테이너 시장을 중심으로 해상운임 하락세

- 관세 부과 이전 밀어내기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와 中 춘절 이후 계절적 비수기 진입, 관세 부과 영향 본격화 등으로 인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둔화되며 운임 하락세
 - SCFI(P) : 4,692('21.1Q) → 4,851('22.1Q) → 969('23.1Q) → 2,010('24.1Q) → 1,761('25.1Q)
-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중국의 대미 교역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BCG, 2025)되어 컨테이너 시장의 핵심 노선인 북미 노선 물동량이 위축될 우려
 -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인상할 경우 '33년까지 연간 미중 무역의 1,59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면서 니어쇼어링 및 GVC 블록화가 진행되겠으며 이로 인해 교역 상품들의 운송 거리가 짧아지면서 해상 물동량(TEU-마일)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선박 공급 과잉에 보호무역주의 영향이 더해지며 시황 약세가 장기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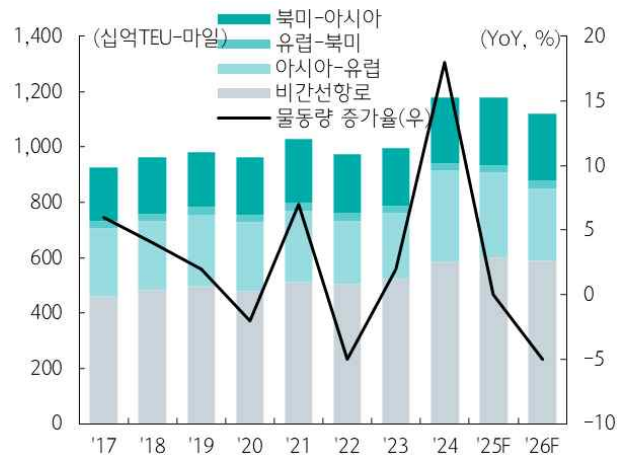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시장은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상황이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해지면서 수요 둔화로 인한 운임 하락세가 심화될 우려
 - 컨테이너선 시장의 물동량(TEU-마일) 증가율은 0.0%('25), -4.8%('26)이나 선대 증가율은 6.2% ('25), 3.3%('26)으로 전망되고 있어 '26년까지 공급 과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
- 한편, 美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선박 또는 중국계 해운사 선박의 미국 입항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운업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중
 - 중국산 선박의 비중이 높은 ZIM과 중국계 해운사들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산 선박 비중이 낮은 HMM 등 국내 해운사는 해당 조치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시황 약세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기대
- 컨테이너 선사들은 운임 방어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북미 노선에서의 물동량 둔화에 따른 운임 하락이 불가피하며 시황 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해운사들은 운임 방어를 위해 GRI(총괄운임인상)를 단행하거나 공동행동을 통한 선대 조절에 나섬 

그림10 | 중국의 2023년 대비 2033년 국가별 교역 전망



자료 : BCG, 하나금융연구소

그림11 |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및 전망



자료 : Clarkson

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